

오전(1부, 노량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7월 21일 (제126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완벽주의

한때 자서전을 쓰다가 덮어버렸다. 완벽하게 쓰려다 보니 자꾸 나를 미화하는 위선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처럼 참회록이나 쓰자 하고 덮었다.

완벽주의는 외식과 위선을 낳는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곁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마23:27).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이었다. 금식도 잘했고, 십일조도 잘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율법을 다 지키는 완벽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에 불과했다. 그들의 십일조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었고, 그들의 기도에는 교만이 가득했고, 그들 마음에는 돈이 좋아 탐심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했다. 그들은 위선 덩어리였다.

외식(外飾)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경계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곁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마23:28).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6:1).

그리고 보면 나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목사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하고, 한 일은 했다고 한다. 내가 목사랍시고 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흠 없는 완벽한 사람인 척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위선을 떨어야 할까.

외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해서다.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떠벌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청을 돋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일부러 꾀죄죄하고, 초췌하게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에 임한다. 왜냐? 나의 앓고 일어 섬을 아시며 나의 길과 높을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시139:2-3)을 믿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외식과 거짓을 낳을 뿐이다. 진실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성령의 대역사 가운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며 목발을 들고 뛰는 실상이 나타나는 바에야 사실 더 긴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눈으로 목도한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루이스(Luis) 목사는 잔뜩 고무되어 목사들을 모을 테니 자기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주일예배에는 자기 교인들이 잘사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잘 사는 나라는 다 적으로 돌리고, 못사는 나라들만 친구로 삼고

를 해줬는데 여전히 이곳 그대로군요." 목사님이 방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령을 부어주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종이 다녀간 자국이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나오시는데, 이렇게 오랜만의 방문에서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이것이 어디 베네수엘라(Venezuela)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야 성도들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여 가

이신 그분과 늘 동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 없는 시간을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매사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돈을 심으세요. 돈을 심고 돈나무를 키워야 돈이 주렁주렁 열릴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



주일예배(루이스 목사 교회)

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못 산다고 자조 섞인 말로 한탄했다.

코로나로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광고가 잘 났는지, 집회에 이어 진행되는 주일예배라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교회 부지를 빼앗겼다고 했지만, 루이스 목사는 교회 사무실 벽면에 성전 조감도를 걸어놓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다. 10년 전 교회 부지로 목사님을 끌고 가 기도를 받았었던만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니 안타깝기도 했다.

목사님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보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10년 전에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

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닐까?

목사님은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읽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셨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잘 사는 사람과 친구가 되세요. 이걸 만고의 진리입니다. 스페인어 잘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스페인어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공부 잘합니다. 그러나 도둑놈하고 다니면 도둑질하고, 마약하는 놈하고 다니면 마약합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지혜의 원천

면 도둑심보지요.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했듯이 십일조를 지켜야 합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자는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둑놈 소리를 듣고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뜻만 보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다시 이 나라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말씀대로 실천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정부가 지금대로 계속 선진국가들과 적대 정책을 계속하는 한 백성의 삶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루이스 목사가 국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목사님



루이스 목사 교회 사무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49~50)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나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죄악과 병과 가난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대신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집회 때 제가 한 말입니다. 이젠 제 진심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루이스 목사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를 청했겠습니까.

저는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그 나라에 절실했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의 죄악과 병과 가난을 어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 마음일 뿐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알기에, 저는 그들에게 먼저 성령에 대해 가르쳤고, 성령을 받도록 회개하며 통성기도를 시켰고(행2:28), 성령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목도케 하였습니다. 이번에 피운 성령의 불씨로 인해 베네수엘라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고, 국민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호도이다

여러분, 어찌 이 마음이 베네수엘라만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죄악과 병과 가난을 퇴치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뭐하고 해도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 몰랐으니까 그렇다치고,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죄와 병과 가난을 주는 놈의 정체도 알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진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병과 가난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행복과 부유와 건강과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에 올라

가시면서도 행여 당신이 피 값을 치르고 산 자녀들을 잃게 될까 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6~27).

평안함은 원수가 없을 때, 적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죄악과 병과 가난, 저주를 가져다주는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함을 주님은 아시기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에 게 허락 하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고전12). 그런데 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끼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이것 역시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함이고, 여러분은 성령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성령을 근본부터 가르치고, 불을 지펴야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남은 불씨를 살리면 됩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으면 불길이 살아날 테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살전5:19). 이 말씀인즉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펴놓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꺼집니다. 그래서 계속 장작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등불도 계속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슬기롭다 하였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마25).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레6:8~9). 거기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향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류가 성립됨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습니까(행2:1~4).

요즘 AI가 탑재된 휴대폰이 나와서 아주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집회를 마치고 얼른 출국하라는 재촉을 받아 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회 때 은혜를 받은 국방장관의 보좌관이 공항으로 찾아와 상

답을 청했을 때도 통역관 없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고 편리한 휴대폰이라 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녁이면 충전을 땡땡히 해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어디 핸드폰에 비기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못 쥐서 몸살이 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부족하고 아픈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기도가 충전되어 있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판치는 놈이 누구

겠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이유, 바울과 베드로가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며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사 제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각색 병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잠깐 쏴아놓으면 잠깐 쓰고 바로 방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고, 저 역시 하루 4시간 이상, 집회에 나가면 잠을 포기하고 7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도적이 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치 실탄 없는 총을 들고, 빈 지갑을 들고 품잡는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총알이 있으면 꿈이 나타나도 쏘아 쫓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 경내가 평안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도적이 듭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이 날뛰어 넘어져 다치고, 망하고, 꺾이고, 다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또 빛이 없으면 추워지고, 냉랭해집니다. 죄와 가난과 병과 저주, 그리고 사랑이 식은 것은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랑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꺼진 불을 다시 살리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아 성령의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사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뤄질 것입니다(요삼1:2).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경배와 찬양 ::

떼 쫓에 매 놓기?

군 시절, 어느 날 교육을 앞두고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앞에 무언가가 자꾸 어른거린다.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 쫓이었다!

자연산 쫓은 처음 보는 터라 신기해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난데없이 쫓이 잔걸음으로 뛰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아니 인기척을 느꼈으면 날아오르는 게 정상일 텐데, 새가 뛰긴 왜 뛰어? 아마 갑자기 등장한 인간 때문에 다급해지니까 순간 날 생각도 못했나 보다.

넵다 뛰는 쫓을 뒤쫓아 내가 뛰고, 내가 뛰니까 고참도 따라 뛰고, 후임병도 따라 뛰고... 그렇게 얼마간 몰아가는데 별안간 쫓이 엉덩이를 쳐들고는 풀숲에 자기 머리를 푹 처박는 게 아닌가! 머리 나쁜 사람을 일컬어 새 대가리라고 하더니 쫓 생각에 머리만 숨기면 자기를 못 볼 줄 알았나 보지?

그런데 그때였다. 근처에 몇 마리 쫓이 더 있었나 보다. 그 녀석이 푸다닥거리고 뛰는 통에 주위에 있던 다른 녀석들도 위기의식을 느꼈던지 순식간에 곳곳에서 푸다닥거렸다. '이거 쫓 발이로구나, 쫓 발!' 곳곳에서 푸다닥거리며 달음질치고, 날아오르는 쫓들로 인해 어수선해지기도 잠시, 아빨싸!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아까 뒤쫓던 쫓마저 고개를 쳐들더니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오로지 저 녀석만 뒤쫓았다면 쫓고기 맛 좀 보는 건데...'

옛말에 '떼 쫓에 매 놓기'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도 일의 성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 욕심만 앞세우다 보면 자기가 맡은 일 중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지금 청소년 수련회 준비로 한창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오셨던 부모 세대의 뒤를 이어, 자녀 세대를 영적으로 담금질하는 귀한 은혜의 장이다. 숨 쉴 틈 없는 일정 가운데서도 총회장님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것도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 청소년들이 교단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는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는 담당이 누구요, 책임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은 정말로 안이하고 무익한 일이다.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하고, 또 동참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고전9:26)라고 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련회,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수련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재무장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신현명 목사

삼 속의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기도원에서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곳 주변에 있는 죽은 나무들을 옮기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얇은 나뭇가지, 죽은 낙엽들 등 적지 않은 양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나무들을 치우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업해보니 큰 나무들은 정리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큰 나무들의 가지들이 그물 역할을 해주어 다른 나무들 또한 손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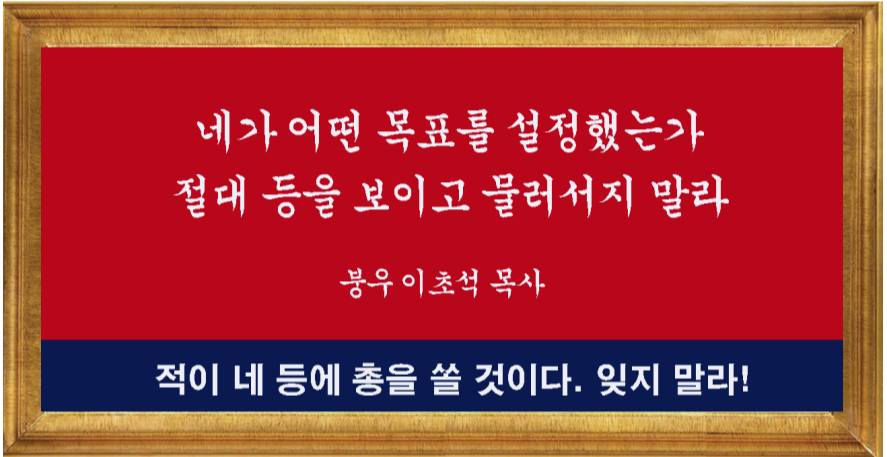
작업을 더디게 한 것은 아주 얇은 가지 나무들이었습니다. 얇아서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얇은 몸에만 작은 가지로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모두 걷어내었고,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바위가 드러나고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죄의 모습 또한

이 나무들과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죄들은 너무나 명확히 죄라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가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심코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죄들은 작은 가지가 되어 우리 삶 이곳저곳에 박힌 채 우리를 괴롭힙니다. 습관이 되어 오히려 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적인 죄들마저 걷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전5:22, 막9:43-47).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고 정직한 자가 돼라.', '복이 철에서 나서 철을 잡아먹는다.'고 하십니다.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윤에녹 생도



:: 세상을 보는 창 ::

:: 소망의 언덕 ::

신앙의 품격은 언어에서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시몬과 요한을 불러 명령한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라고 한다.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구해온 것은 사람의 혀였고, 요한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구해온 것도 사람의 혀였다. 가장 귀한 혀가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한마디 말로써 천 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써 전쟁이 시작되기도 한다. 사람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호모로쿠엔스(Homo Loquens)라는 말이 있다. '말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위대한 능력이다.

평범한 사람은 인생의 1/5을 말하는데 보낸다고 한다. 하루에 하는 말을 책으로 묶으면 평균 50페이지, 1년에 하는 말을 묶으면 적어도 100권의 책이 나올 것이다. 잠깐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즉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육부서 새내기 전도사일 때 초등학교 2

학년 아이가 들려준 말이 아직 마음에 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아팠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적이 없었던 나는 해머로 맞는 기분이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도 가끔 어린 친구의 말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고 불렀던 찬송이 가끔 마음에서 올라와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언어도, 자세도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셨다.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입에서 나간 말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자신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자. 말은 곧 나 자신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 품격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향기를 담아내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다.

이정금 전도사

모르는 것은 물어보라

"예수 열 받으셨도다/ 예수 열 받으셨도다/ 예수 열 받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중학교 때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금요철야예배를 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축도해주시기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열 받으셨지?' 지금처럼 화면에 찬양 가사를 띄어주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남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민하던 중학생 시절인지라 물어볼 수도 없어서 귀를 기울여 다른 성도님들의 찬양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하! 이제 알았다. '예수 열 받으셨도다'가 아니라 '예수 널 바꾸셨도다'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날 바꾸셨구나. 암요, 암요, 맞구 말구요."

혼자서 여전히 틀린 가사에 나름 은혜를 받으며 그 후로도 한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찬양 가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목사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알려 주셨건만, 정작 저는 안다는 생각만 있고 행함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총회장 목사님께 직접 보고드릴 사항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어 조심스럽게 보고사항에 첨언하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혹 '이것도 모르냐?' 하고 핀잔을 듣는 것은 아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메시지로 답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주셔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제가 여쭙았던 것에 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조금의 귀찮아하심도 없이 정성껏 답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대처하기 난처했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와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어때시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도로 여쭙서 중학생 시절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현승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 ::

:: 빛이 되리라 ::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사드락 모세 목사 부부

수 없던 거다. 하여 만여 명의 대대적인 목회자 세미나도 취소되고 부랴부랴 장소를 옮겨 집회를 갖게 되었고, 루이스 목사는 자기 교회에 목회자들을 모을 테니 세미나를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목사님은 항상 해외집회에

부부가 대기실로 들어와 인사를 한다. 알고 보니 우리가 VIP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다. 전 국방장관의 보좌관이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며 목회도 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고민이 있다고 말한다. 이미 통역관 이현숙 선교사는 비행기 편이 맞지 않아 먼저 떠난 상태였고 핸드폰 통역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고민은 현재 목회와 변호사 일을 겸하고 있는데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접어야 할 것 같고, 그러자니 가족들의 생활이 걱정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당연히 심각한 고민이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찾아 읽으라 하시며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권면하셨다. 그리고 '내 목회 40년의 비결은 오직 기도였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목사님의 잠언을 보여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내 비서들 이메일을 통해 물어보면 성심성의껏 답해주셨노라 약속하시고 기도해주셨다. 이메일을 교환하며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 자체가 은혜가 되었다. 사드락 모세(Sadrac Moises Jimenez).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 그에게 그런 이름을 준 뜻이 분명 있을 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을 예비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 어찌 보면 이번 집회는 루이스 목사보다 이 사드락 모세 목사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이 먼 나라로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출국장 게이트로 가는 동안 우리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목사님은 모든 피로가 가신다고 기뻐하셨다. 힘겨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목사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었다.

한은택 목사

서 일어난 역사를 돌아가 한국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 어찌 보면 그런 의식이 목사님을 더욱 각성시키는 동인일지도 모르나, 그러다 보니 더욱 초긴장 의식으로 집회를 준비하신다. 시차를 떠나 잠도, 식사도 거르신 채 기도에 전무하신다. 목사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누가 알겠나?"고 말씀하신다.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시차와 싸우며 어렵게 일정을 소화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나는데, 선거유세가 있어 도로가 극심하게 막힐 예정이니 5시간 전에 출발해야 한다. 도로 상황은 순조로워 1시간 만에 공항에 도착하니 아직 체크인카운터가 열리지도 않았다. 푸드코트에 들어가니 짐통 같이 텅고 의자도 너무 불편했다. 루이스 목사 혼자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시라 말했다. 한참을 망설이다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나 VIP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며 안내한다. 그냥 돌아가자니 인간적으로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찾고 찾아서 전직 국방장관 보좌관이었던 인사에게 전화했단다. 체크인을 하고 VIP 대기실에 들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다. 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루이스 목사는 돌아가고 한참을 지나 한

항상 느끼는 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을 준비하신다. 이번 베네수엘라(Venezuela) 집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0년의 기억으로 우리는 기대 속에 카라카스(Caracas) 공항에 도착했다. 당연히 VIP 입국 절차를 통해 수월히 입국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입국 절차를 밟는데 이민국 직원은 스페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부르겠다고 하고선 무조건 기다리란다. 그렇다고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목사님은 결국 가방을 놓고 그 위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셨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네들이 '입국을 허락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하면 꼼짝없이 출국 조치될 수도 있는 거다.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시는 목사님이니 당연하다. 결국 거의 1시간 남짓 기다린 끝에 입국을 허락해주었고, 입국장에서 만난 루이스(Luis) 목사는 잔뜩 긴장하여 '목사님이 못 들어오시면 이 집회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말한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10년 사이 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루이스 목사를 돕던 권력자들이 모두 끈 떨어진 것처럼 권력에서 배제되어 아인생활을 하고 있다니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노방전도의 열매

얼마 전 청장년부서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주일예배 후 노량진교육관 근처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신문을 접어서 과자와 함께 비닐에 동봉해서 예수를 전하며 나눠 주었습니다. 2~3명씩 나눠 빨뽕이 흩어졌고, 저와 함께한 지체 들은 큰길보다는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 신문을 보고는 이초석 목사님을 잘 안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고, 기도원 집회도 오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요즘 귀신이 자주 나타나서 본인을 괴롭힌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였다. 유튜브에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건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죠. 5분 정도 함께 걸어가니 우리 교회 노량진 기도처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도처가 그분이 사는 집 바로 근처 건물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기도처에 붙어있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연결해서 성도님과 연결해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그 주 수요일저녁예배부터 주일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잘 나오시고 있습니다. 8월 기도원 집회도 벌써부터 너무 가고 싶어하시고요. 할렐루야!

청장년부 지체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노량진 노방전도를 그분 때문에 하게 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그분께 붙여 주신 것 같다고요. 혹시, 노방전도에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장명훈 집사

제26회 GOD POWER **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중·고등부 2024.7.29(월)~7.31(수)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대학·청년부 2024.8.1(목)~8.3(토)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